

ESG 금융 부상을 배경으로 한 유엔의 국제투자-지속가능한개발 넥서스

이수현

이번 발표에서는 ESG (환경, 사회, 거버넌스) 투자의 급격한 성장을 유엔의 이니셔티브와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구축된 프레임워크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UN은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와 2030 어젠다(Agenda 2030)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에 있어 국제 민간투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증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 금융기관과 신용평가기관들이 어떠한 투자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관되는지를 정의하고(투자유형) 더 나아가 특정 투자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의 기여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측정규정)을 주도하게끔 만들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연관된 민간부문의 투자유형 정의 또는 기여도 측정규정이, 유엔이 생각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투자의 역할과 어긋나게 될 때, UN과 민간부문 참여자는 경쟁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UN은 민간부문과의 경쟁적 구도를 피하고자 두 가지의 시도를 해왔다. 첫째, UN은 민간부문과의 유한책임 파트너십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관계형성을 시도해왔다. “UN에 의해 지지되는 책임있는 투자원칙”(“UN-backed”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또는 “UN주도의 탄소제로 투자연합”(“UN-Convended” Net-Zero Asset Owner Alliance)등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UN은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시도해왔다. “유엔환경계획의 금융이니셔티브”(UNEP-FI)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 그룹”(GSID) 등이 이에 해당된다.

UN은 국제투자자와 지속가능한 개발의 결합을 목표로 선도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하지만 UN이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며 적응해가지 못한다면, UN은 빠르게 진행되어가고 있는 지속가능한 투자 논의의 장에서 점차 배제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수현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펠로우이다. UN에서 기업실사(due diligence) 분석가로 재직하며 스웨덴 룬드대학교에서 UN 2030아젠다 PhD 리서처로서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Financing for Development)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지속가능투자센터(CCSI) 펠로우로서 국제투자법 및 정책을 다루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 및 분쟁중재 프로그램 연구원 (2015-2019),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리서치펠로우 (2013-2017)를 역임했고, UN대학교 (UNU) (2011-2013)와 UN글로벌컴팩트 (2009-2011)에서도 근무했다. 미국 뉴욕대학교와 버크넬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일본 UN대학교와 동경대학교에서 국제경제법 전공으로 대학원을 마쳤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여 스웨덴 룬드대학교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2019년 사회적가치와 관련된 법률 컨설팅 스타트업을 공동 창립하여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통상 및 투자분쟁을 전문분야로 하는 국제경제법 변호사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연구분야는 국제경제법, 국제투자 정책, 무역과 투자 분쟁 중재, 그리고 지속가능한 금융과 개발이다.

일시: 2021년 05월 25일 (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210호)